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김 혜 준 ^{**}

<목 차>

1. 시노폰 문학과 세계화문문학
2.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긍정
3. 스수메이의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비판
4. 왕더웨이의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비판
5. 시노폰 문학과 화인화문문학

1. 시노폰 문학과 세계화문문학

2004년, UCLA의 스수메이(史書美) 교수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을 제기했다. 이어서 하버드대학의 왕더웨이(王德威) 교수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관련 학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그 후 지난 10여 년간 시노폰 문학 주장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북미 화인 학계는 물론이고 타이완 학계, 홍콩 학계, 말레이시아 화인 학계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¹⁾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 釜山大 中文科 教授.

1) 이하 스수메이와 왕더웨이의 시노폰 문학에 관한 주장은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접 인용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외에는 생략하고자 한다. 두 사람의 주장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김혜준(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들에 따르면, 한어(Chinese)는 원래 단일한 한 종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언어로 되어 있다. '시노폰(Sinophone)'이란 그러한 각종 한어 (Sinitic languages) 또는 그것을 구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단일 개념의 한어(혹은 국어/보통화 등 표준 한어)에 상대되는 집합 개념으로서의 한어(화어) 또는 그 언중(言衆)을 의미한다.²⁾ 같은 이치로 '시노폰 문학'은 바로 이와 같은 각종 한어로 이루어진 문학을 일컫는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언어학적인 판단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주의/민족주의 내지는 중국중심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내외부에 산재하는 '시노폰 집단'들의 '발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점은 시노폰 문학의 정의 및 그 변화를 참고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애초 스수메이는 중국 대륙 외 지역에서 화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화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시노폰 문학이라고 정의했다. 그 후 왕더웨이가 가세하면서 시노폰 문학은 대륙 내에서 한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소수종족)이 한어로 창작한 문학 까지 포괄하게 되었다.³⁾

그들의 이런 주장은 대륙 학계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중국문학(중국 대륙 문학, 타이완문학, 홍콩문학, 마카오문학) 및 '화인화문문학'(중국이 아닌 세계 각지의 화인이 화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보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는 사실상 중문문학(또는 한어문학, 화문문학)의 판도와 계보를 재구성하자는 것이자, 더 나아가서 중국 문제에 관한 담론주도권을 두고 대륙 학계와 경쟁하려는 것 이기도 하다. 물론 대륙 학계로서는 그들의 이런 시도를 마냥 무시하거나 외면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1980년대 이래 화인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고 수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화인 학계의 영향력 또한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⁴⁾

2) 그들은 대체로 집합 개념의 각종 한어를 '화어'라고 부르면서 단일 개념의 '한어'와 구분하고자 했다.

3) 왕더웨이는 王德威(2006) 등에서 은연중에 시노폰 문학에 다음의 것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첫째, 중국 대륙의 민족주의/국가주의적 한어 문학을 제외한 각종 다양한 목소리의 한어 문학. 둘째, 화어를 사용하는 중국 대륙 외 화인이 다른 언어로 창작한 '화인 비화문문학'. 셋째, 심지어 중국 대륙의 민족주의/국가주의적 한어 문학.

4)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대륙의 '문학사 다시 쓰기(重寫文學史)' 현상에 미친 영향이다. 대륙에서는 화인 학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맹목적으로 그 주장과 방법을 모방하는 현상

대륙 학계는 1997년의 홍콩반환이 확정된 1980년대 중반부터 홍콩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뒤 그러한 관심은 점차 타이완문학, 마카오문학 및 화인화문문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1993년 이후에는 중국문학 및 화인화문문학 전체를 '세계화문문학'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면서, 기존의 '중국현당대문학'과 대비되는 새로운 학술 영역을 구축했다.⁵⁾ 그러나 세계화문문학 학계는 여전히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화문문학이라는 용어가 과연 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적절한지 등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륙 학계 내부에서 받는 냉대와 세계 각지의 화인으로부터 받는 회의 역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시노폰 문학 주장은 세계화문문학이라는 학술적 개념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학계의 존립 자체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대륙 학계,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화문문학 학계는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평가는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 또 양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까지 나타났다. 이에 베이징대학의 원루민(溫儒敏)과 같은 학자는 이를 '시눌로지 추종 심리(漢學心態)'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화인 학계의 시눌로지(특히 중국현당대문학 연구)를 존중·연구·도입해야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중국의 학술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溫儒敏(2007.03), 溫儒敏(2007.07), 楊後蕾(2010), 畢紅霞(2013) 등 참고.

5) 세계화문문학은 이론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화문문학(즉 중국현당대문학)까지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세계화문문학은 대륙의 공식적인 학술 체계에서 오히려 중국현당대문학의 하위 분야에 속한다. 심지어 일류 학자는 고대문학, 이류 학자는 현대문학, 삼류 학자는 세계화문문학을 연구한다는 우스개까지 있다. (畢紅霞 2013: 33 및 朱崇科 2014: 19)

2.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긍정

종래로 초국가적 이주자로서의 화인은 항상 거주지로부터 그 충성심을 의심 받아왔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화인이 가진 경제력과 결속력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런 상황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가 냉전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층 심각해졌다. 한편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각국의 견제로 인해 화인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시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인과 거리를 둘으로써 화인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당시 신생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동남아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추진했고, 각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화인에게 현지 국적을 취득하도록 장려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동남아의 화인들은 거주국으로부터도 차별 대우를 받고 그들이 의지하던 출발지로부터도 버림받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곧 19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참극이다. 수하르토 정권의 반공 정책과 민족주의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외면 속에서 수 만 명의 화인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⁶⁾

그런데 근래에 와서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다. '중국의 강국화(中國崛起)'가 그 중 중요한 한 요인이다. 그로 인해 한편으로는 거주지에서 화인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화인에 대한 의심 역시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 쪽에서 전과 태도를 달리 하여 어떻게든 화인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재민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수백 년에서 수십 년 동안 화인의 현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유동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화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화인으로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그간의 불안한 사정을 청산하고, 정

6) 최승현(2011) 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스수메이와 왕더웨이 등은 시노폰 문학을 제기하고 시노폰 집단, 시노폰 문학, 시노폰 언술(Sinophone articulations) 등등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해가면서 화인과 중국, 화인과 거주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스수메이, 왕더웨이 등의 이런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반응은 어떨까? 관련 논문의 내용과 어조 및 다음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할 때, (아마도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학자들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륙에서는 왕더웨이의 많은 저서와 논문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고, 각종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 그의 학술적 성과물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언급되고 있다. 또 종종 왕더웨이와 스수메이 등의 시노폰 문학 주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시노폰 문학 주장을 의식한 연구물 역시 적지 아니 발표되고 있다.⁷⁾ 다만 현재로서는 시노폰 문학 주장에 동의하면서 관련 용어나 개념까지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대륙 학계는 일단 시노폰 문학의 제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시노폰 문학의 제기는 화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전체 대륙 학계 특히 세계화문 문학 학계의 단조로운 연구 상황을 타파했다. 둘째, 포스트식민이론을 활용하는 등 학제적 시각을 도입함으로써, 대륙 학계가 익숙했던 기존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성찰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세계 각지 화인 집단의 다양한 현지성을

7) 현재까지 대륙에서 출판된 왕더웨이의 저서는 10권에 이른다. 그밖에 CNKI(中國知網)의 철학 및 인문사회 과학 영역을 검색한 결과, 2017년 1월 21일 현재 대륙에 발표된 관련 문장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왕더웨이 계재 96편, 스수메이 계재 2편, 왕더웨이 주제 758 편(석사 53편, 박사 11편), 스수메이 주제 15편(박사 2편), 시노폰 문학 주제 58편(석사 3편). 이 중 일부 문장은 중복되겠지만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8) 朱崇科(2010), 朱崇科(2014), 楊俊蕾(2010), 曾軍(2012), 畢紅霞(2013), 李鳳亮·胡平(2013), 湯擁華(2014), 劉俊(2015), 彌沙(2015)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강조함으로써, 대륙 학계가 초국가적 콘텍스트 속에서 이 문제의 복합성을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넷째, 중국문학 및 화인화문문학을 전지구적 네트워크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그것들의 위상을 제고시킴과 더불어 대륙 학계의 연구가 국제화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이론에 반발하는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단위가 아닌 언어 집단 단위의 문학 범주를 주장함으로써, 서양 주류 학계의 담론주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대륙 학계 또한 그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대륙 학계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시노폰 문학 주장에서 현지성(로컬성, 本土性, 在地性)을 강조한 점이다. 예를 들면, 주충커(朱崇科)는 이렇게 말한다. “시노폰 문학의 배후에는 화문문학의 현지성에 대한 의도적인 강조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필자(주충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견해다. 각지 화문문학의 현지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상호 본받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이부동한 문학 중화라든지 그 외의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朱崇科 2010: 148)⁹⁾ 심지어 주충커는 이와 관련해서 “속죄(救贖)”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륙 학계가 그동안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편견을 시정하고자 한다.(朱崇科 2014: 18)

다만 시노폰 문학을 주장하는 화인 학자의 현지성 강조와 대륙 학자들의 현지성 존중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시노폰 문학에서 현지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심지어 중국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 반면에 후자는 세계화문문학에서 현지성을 존중하면서 중국중심주의를 반성하지만, 여전히 중국성이 핵심이며 당연히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현지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衆聲喧嘩)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

9) 탕옹화(湯擁華) 역시 “그녀의 주안점은 ‘문학의 현지 상황’이다. 이론 연구의 차원에서 나는 이것이야 말로 스수메이에게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湯擁華 2014)라고 말한다.

학자는 최종적으로는 중국(대륙)과의 단절을 통한 철저한 현지화까지 주장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현지의 특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국(대륙)과의 친연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세계의 형성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스수메이의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비판

이처럼 대륙 학계에서는 시노폰 문학 제기에 대해 새로운 학술 시각 제시, 학제적 연구 방법론 적용, 초국가적 연구 시야 제공, 국제적 연구 영역 구축, 세계적인 학술 담론 생산 촉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륙 학자의 시노폰 문학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개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다. 오히려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그 비판은 대개 스수메이에게 집중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이른바 '反離散論'과 '反中國論'을 펼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수메이는 史書美(2011) 등에서 이제 더 이상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에서 화인을 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화인에 대한 거주지 국가로부터의 이질화와 주변화, 출발지 중국으로부터의 동질화와 주변화라는 이중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인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합법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하게 현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록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서양 제국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중국이 대륙 외 화인에 대해서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녀는 과거 대륙 외 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집단은 원주민에 대해 일종의 이주 정착자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를 실행했으며, 중국은 종래로 내부의

시노폰 집단(소수종족)에 대해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실시해 왔다고 본다. 그녀의 논리에 따르자면 타이완은 정치 실체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역사 문화적 존재로서의 중국과도 전혀 무관한 곳이 된다. 따라서 타이완의 독립 역시 당연한 일이 된다.

대륙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스수메이의 이러한 주장과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 또는 한족의 대외 침략 성 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홍콩 및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화인집단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단절론은 세계 각지의 화인 집단이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서 거주지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희망사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 나아가서 잠재적으로는 홍콩의 독립과 대륙 내 소수종족의 독립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륙 학자의 비판은 시노폰 집단(또는 화인)과 중국을 이항 대립적으로 보는 스수메이의 반이산론, 반중국론, 내부식민주의, 이주정착자 식민주의 등의 주장 및 이에 입각한 시노폰 문학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대륙 학자들은 스수메이의 주장이 대륙과 타이완의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로서의 주장이자 냉전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그 동안 대륙 학계에서 화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최소한 세계화 문문학 학계에서 만큼은 화인과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스수메이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⁰⁾

대륙 학자들은 스수메이의 주장에 대해 기본 관점 면에서뿐만 아니라 논리 구사 면에서도 비판한다. 그들의 비판은 대체로 스수메이가 포스트식민 이론

10) 주로 朱崇科(2010), 朱崇科(2014), 劉俊(2015) 등을 참고했다. 다만 대륙 학자로서는 이 문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면 결국 대륙 내부의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 등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욱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판은 자제하는 것 같다.

과 소수문학 이론 등 서양 학술계의 일부 이론을 중국과 화인 문제에 단순 적용했거나 오용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오시팡(趙稀方)의 스수메이에 대한 비판이다. 그에 따르면(趙稀方 2015), 스수메이는 서구 식민주의자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앵글로폰 집단 등이 그러했듯이 시노폰 집단 역시 중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외 식민을 행한 적이 없고, 화인은 주로 중국 내 전란과 혼란을 피해 외부로 이주했으며, 오히려 화인이 마주친 식민주의자는 서구 식민주의자이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영국이 식민종주국이었다고 하면서 스수메이가 포스트식민이론을 오용했다고 말한다. 또 자오시팡은 시노폰 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에서 스수메이가 호미 바바의 혼종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 역시 오용이라고 비판한다. '해외화문문학' (즉 대륙 외 시노폰 문학)은 그 범주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중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중국문학과 서로 융합되는 것이며, 따라서 시노폰 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는 변형과 조롱 방식의 저항적인 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오시팡은 심지어 스수메이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문학 주장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그들의 이론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소수문학은 소수자가 주류의 언어를 사용하여 창작한 것일지만, 스수메이가 주장하는 시노폰 문학은 화인이 화어로 창작한 것이므로, 중국문학과의 관계에서 시노폰 문학을 소수문학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자오시팡의 이런 비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과도한 점이 없지는 않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스수메이가 앵글로폰 등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시노폰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서구 식민주의와 중국의 식민주의적 행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¹¹⁾ 사실 그녀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11) 스수메이는 “오늘날 해외에 있는 시노폰 집단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중국과 식민 또는 포스트식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는 시노폰이 … 히스페노폰(Hispanophone), 프랑코폰(Francophone) 등과 가장 다른 점이다.”(史書美 2013: 54)

현재의 중국(대륙)과 시노폰 집단의 관계에서 볼 때 전자가 패권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그녀가 내부식민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대륙(또는 한족)과 대륙 내 소수종족의 관계에 대해 식민주의 내지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또한 과연 대륙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양자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전면 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셋째, 스수메이가 타이완에 대해 이주정착자 식민주의를 적용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스수메이의 주장이 원주민 환원주의 내지 절대주의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¹²⁾ 그런데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족이 식민자로 간주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과거 원주민과 본성인에 대한 일본과 외성인(또는 국민당 정권으로 대표되는 중국), 현재 타이완주민 전체에 대한 대륙(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중국)이 각기 억압적인 존재로 간주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스수메이가 시노폰 문학에 대해 소수문학 이론을 활용한 것이 오용이라고 비판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카프카를 예로 들면서 소수자가 주류언어로 쓴 문학에 대해 소수문학이라고 정의한바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로 이주한 화인이 창작한 문학은, 그것이 거주지의 주류 언어를 사용한 비화문문학이든 아니면 화문을 사용한 화문문학이든 간에, 소수자로서 그들의 삶을 표현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문학이 주류문학을 변화시키고 주류문학과 더불어 새로운 문학을 탄생시킬 잠재적 역

라고 말하기도 했다.

12) 인류의 긴 역사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주자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원주민이고, 그들이 그 지역의 원래 주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과연 언제나 합리적인 것일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어떤 집단이 주류이자 중심이 되어 다른 집단(들)을 소수화하고 주변화하는 그것이 아닐까?

13) 스수메이도 이 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시노폰의 주류언어는 표준 한어일 것이다. ……시노폰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문학’ 이론을 차용하여 실천하는 식으로 일종의 ‘소수 언술’이 된다. …… 중국 경내의 소수 종족이 표준 한어의 사용을 통해 중국성과 중국 민족성을 녹여 넣는 것은 곧 시노폰 언술의 전형적인 예다. 중국 경외에서도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는 언술 실천이 있다.”(史書美 2014: 57)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녀가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단지 화인과 중국, 시노폰과 한어의 관계에 한정해서 중국과 한어가 각각 화인과 시노폰에 대해 주류라고 간주한 것임을 보여준다.

량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들판즈와 가타리의 관점을 원래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변용하여 적용했다고 해서 이를 오용이라고 단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들판즈와 가타리의 이 귀중한 관점을 더욱 적극적 으로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절대화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대륙 학계의 반응 가운데 이론 혹은 논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또 탕용화의 견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湯擁華 2014)에서 스수 메이의 정치적 입장 자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주로 그녀가 구사하는 논리 와 이론을 역이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 째, 그녀는 화인이 거주지 사회와 중국으로부터 이중 주변화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지만, 막상 논지를 전개할 때면 오히려 그런 주변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그녀는 이념적으로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부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 된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그녀는 시노폰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사유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그 역량을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사유 방식이 과연 현실을 바꾸어놓을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넷째, 시노폰 연구를 내세 워 중국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녀가 구사하는 이론 자체가 서양중심 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혹시 그녀 자신이 제3세계 출신 학자로서 서양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제3세계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탕용화의 비판은 상당히 예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스수메이에 대한 그의 해석 내지 비판이 모두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선 스수메이는 중심으로서의 중국과 주변부로서의 시노폰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부라는 약세적 지위 속에서 동원 가능한 최대 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그녀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심을 해체함 으로써 근본적으로 아예 중심과 주변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 개념에 관한 지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보기엔 이렇다. 스수메이는 중국 개념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오늘날 중국을 어

면 본질이자 원천으로 간주하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허구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중심주의를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중국 개념 및 그것을 넣은 특정한 현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설명한 민족 개념과 특정한 현실의 관계처럼, 중국 개념은 어떤 현상들을 추출하여 상상해낸 것일 뿐인데, 지금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그 점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스수메이가 원천과 지류, 뿌리와 가지라는 비유를 거부하면서¹⁴⁾ 다양한 집단들의 집합체로서 시노폰 집단이라는 집합적 전체를 상정하는 것 자체도 모순은 아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이고 총체적이며 불변적인 중국이라는 중심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며, 중심이 따로 없는 동등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집합체로서의 시노폰 집단이라는 공동체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⁵⁾

스수메이는 시노폰 문학에서부터 시노폰 연구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사유 방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인식론의 차원으로까지 진전되고 현실을 바꾸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가 어렵다. 내 생각에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스수메이의 과거 이력과 현재 상황을 이유로 해서 오히려 서양중심주의를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 있다.¹⁶⁾ 비록 자신의 의욕적인 주장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이

14) 스수메이, 왕더웨이 등은 이런 차원에서 들판과 가타리의 '리즈 이론'(theory of rhizome)이라든가 스튜어트 헐의 '뿌리가 아닌 경로'(roots and routes)라는 아이디어를 참고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다만 스수메이는 중심 자체가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반면에 왕더웨이는 중국이라는 중심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15) 다만 내가 보기에도 이러한 거대한 상상의 공동체가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16) 스수메이는 한국 화인 출신이다. 한국에서 화교학교를 졸업하고, 타이완에서 대학 과정을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이주했다. 19세기 말 이래 대거 이주해온 전통적인 한국 화인은 일반적으로 1945년 이후 한국의 강력한 국가주의 때문에 한국 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들 중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한국 화인들은 타이완에서도 본성인과 외성인에 의해 주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화인들 역시 주류 사회와 기준의 재미화인들에 의해 다시 주변화되었다. 이 때문에 심지어 한국화인 출신 중에 다수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라리 코리아타운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화인의 일반적 상황에 관해서는 박은경(1986)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녀가 지속적으로 서양 학술계의 서양중심주의적인 행위를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또 서양의 학술 이론을 능숙하게 운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중국적 이론 내지 제3세계적 이론의 제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¹⁷⁾

4. 왕더웨이의 주장에 대한 대륙 학계의 비판

스수메이의 경우와는 달리 대륙 학자가 왕더웨이의 주장과 논리를 단독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 왕더웨이의 많은 관점이 기본적으로는 스수메이와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에는 그의 학술적 지위와 온화한 어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의 견해가 대륙 학자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고, 그 자신의 표현처럼 충분히 양자 간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스수메이는 이중지배를 거부하기 위해 시노폰 문학에서의 '중국 배제(排除在外)'를 주장한다. 왕더웨이는 이에 반해서 이중지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중국 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중국 포함(包括在外)'을 주장한다. 스수메이는 중국의 주변 지역과 종족에 대한 내부식민주의와 이주정착자 식민주의를 주장한다. 왕더웨이는 이에 대해서도 역사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17) 사실 스수메이 자신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서구의 비판이론과 문화이론은 서구 내부의 타자적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외부의 타자만을 다룬다. 그러면서 예컨대 아시아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나온 이론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보면서, 아시아의 현실이나 텍스트를 서구 이론의 적용 대상으로만 간주한다.(Shu-mei Shih 2010: 466, 467) 이런 상황에서 서구에서 활동하는 제3세계 출신의 디아스포라 학자들이 공모, 양가, 저항 등의 방식으로 제1세계 '이론'과 제3세계 '현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Shu-mei Shih 2004: 22) 그리고 도대체 '서구의 이론, 아시아의 현실'이라는 방식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방법으로서의 중국', '방법으로서의 시노폰'이라는 사고가 필요하다.(Shu-mei Shih 2010: 482)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왕더웨이는 王德威(2012), 王德威(2013) 등에서 시노폰과 시노폰 문학에 대해서 스수메이와는 달리 정치 지리적인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포스트유민론(後遺民論)'과 '추세의 시학(勢的詩學)'이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

왕더웨이에 따르면, 시노폰 문학에는 '포스트유민' 현상이 나타난다. 시노폰 집단은 망해버린 나라에 연연해하는 유민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출발지를 그리워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각각의 거주지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지에 대해 상상적 창조를 시도한다. 즉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왕더웨이는 중국문학과 시노폰 문학, 중국인과 화인을 대할 때 정태적인 위치와 입장이 아니라 동태적인 추세와 모멘텀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이전처럼 정치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중심/주변, 안/밖 등의 차원에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광의의 중국'이라는 관념 하에서 서로 간의 간격과 거리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대륙의 중국중심주의 학자들에게 그들이 기왕에 '대 중화주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시노폰 문학에 대해 왜 외면하고 배제하느냐고 질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수메이 등 화인학자들에게 디아스포라적인 고아 심리에서 벗어나서 중국 차원을 활용하자고 호소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아예 '광의의 중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을 수긍하기도 한다. 그러면 서 그는 시노폰 집단의 발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¹⁸⁾ 따라서 대륙 학자의 입장에서는 왕더웨이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왕더웨이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8) 그는 한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광의의 개념에서 말할 때 무엇이 중국이며 무엇이 또 내가 말하는 타이완인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역사적 상황 속에 두고 다시 더 생각 해봐야 한다. 나는 이 중국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중국이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대륙이라는 이 판(板塊)을 위주로 하는 중국이다. 하지만 그것은 해외로 확장될 수도 있으니, 곧 화어 세계라는 중국이다."(苗綠 2012.07: 176)

朱崇科(2010), 黃維梁(2013) 등은 그가 시노폰(Sinophone)을 '華語語系'로 번역한 것은 학술적 오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¹⁹⁾ '語系'란 원래 '어족(family of languages)'이란 뜻인데 이를 시노폰의 번역어로 채용한 것은 학술적으로 염밀하지 못한 것이자 시노폰 언어(즉 한어)가 마치 '어족'처럼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더웨이는 여러 곳에서 해명한 바 있다. 그는 '中文/漢語/華語/華文' 등의 용어에는 한어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미 그런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어의 다양성과 이어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용어 대신 '華語語系'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²⁰⁾

다만 대륙 학자들은 왕더웨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스수메이가 한어와 그 사용 현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²¹⁾ 이는 사실상 왕더웨이에 대해 에둘러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대륙 학자들은 일단 한어가 여러 종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수긍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륙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시노폰 주장자들이 포스트식민이론에 입각하여 시노폰을 앵글로폰 등과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왕더웨이 역시 대륙이 내부의 시노폰 집단(소수종족 및 국가주의와 어긋나는 집단)을 억압하고 외부의 시노폰 집단에 대해 패권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류쥔(劉俊)조

19) 'Sinophone'의 한어 번역어는 '華語語系' 외에도 '華語風'(陳慧樺), '華語'(史書美), '華夷風'(王德威), '漢聲'(劉俊)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시노폰 문학과 시노폰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권에서는 통상적으로 '華語語系'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20) 예를 들면, 왕더웨이는 어느 대담에서 '華語語系'의 '語系'는 'family tree(系譜)'라는 개념에 가깝지만, 한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다양성과 그 사용 언어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한다.(李鳳亮 2008: 201)

21) 예컨대 주충커는 이렇게 말한다. "조금이라도 중국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안다. 대륙 사람 중에서 순수하게 보통화만 말하는 인구 비례는 그리 높지 않다. … 방언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 전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보통화는 관방 언어인데, 이런 방식은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동일시를 강화하기 위한 희망과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원인은 그것이 실천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朱崇科 2010: 150)

차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왕더웨이는 확실히 대중화의 흥금을 가진 화인 학자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가 대륙 학계에 대해 문학적 '국가주의', '(대) 중국 중심', '모국 귀환(四海歸心)', '조상 회귀(萬流歸宗)'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왕더웨이가 이런 그릇된 판단을 표출한 것은 학술적인 인식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劉俊 2015: 58)

대륙 학자들은 어쨌든 왕더웨이에 대해서 긍정적 호의적으로 대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그 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대륙 학자들은 시노폰 문학 주장의 결점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해왔다. 그런데 류쥔은 왕더웨이의 <華夷風起: 馬來西亞與華語語系文學>(2015.01)가 이론적인 사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라고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왕더웨이가 이 글에서 자신의 포스트유민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이 중국성/말레이시아성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세계문학의 차원에서 재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劉俊 2015)

아닌 게 아니라 류쥔의 지적처럼, 시노폰 문학 제기에서부터 시노폰 연구로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빨리 진전되었기 때문에, 정작 출발점이 되었던 시노폰 문학에 관한 사항들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았다. 시노폰 문학의 관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가끔 예로 든 문학 작품들조차 시노폰 문학 주장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소재로만 활용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왕더웨이의 실천은 비교적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탕옹화가 "시노폰이라는 개념이 문학 연구 자체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을 증가시켰는가?"(湯擁華 2014: 64)라고 질문한 것은 상당히 곱씹을

만한 일이다. 탕용화가 보기에 시노폰 문학 학자들과 대륙 학자들의 정치적 견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제기와 그 이후의 진전 과정에서 대체 문학 연구 자체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즉 문학 텍스트 자체의 분석 수단, 그리고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사고 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점과 관련해서 스수메이의 경우에는 시노폰 개념의 제시가 장차 연구방법론의 혁신은 물론 심지어 새로운 인식론의 차원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탕용화는 과연 문학 연구 자체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시노폰 문학 연구(또는 시노폰 연구)가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좀 더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시노폰 문학과 화인화문문학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과 대륙 학자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은 젖혀두더라도 문학적 견해 면에서 대단히 크고 많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문학(중국 대륙문학, 타이완문학, 홍콩문학, 마카오문학)과 화인화문문학을 보는 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대륙 학계는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중심주의(또는 대륙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이완·홍콩·마카오의 문학 및 화인화문문학을 중국문학의 일부 내지 중국문학의 외부 확산 형태로 포섭하려 한다. 반면에 시노폰 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 각각은 독립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문학(또는 대륙문학)과 무관한 존재이거나 최소한 대륙문

학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들은 대륙의 소수종족이 한어로 창작한 문학까지도 시노폰 문학에 포함시킨다. 중국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문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화어문학은 모두 시노폰 문학에 속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왕더웨이의 경우에는 아예 차원을 달리 하여 '광의의 중국문학'이라는 관념을 내세우면서 은연중에 중국현당대문학은 물론이고 화인비화문문학까지도 그것에 포함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 아마도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과 대륙 학자들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지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문학과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외형적인 범주 구분일 것이다.²²⁾

(김혜준)	중국문학						화인문학 (이주자문학의 일부)	
	대륙문학		타이완문학		홍콩·마카오문학		화인 화문문학	화인 비화문문학
	한족 한어문학	비한족 한어문학	한족 한어문학	비한족 한어문학	한어문학	한어문학	화어사용자 화문문학	화어사용자 비화문문학

대륙학계	중국문학						화문문학	화예문학		
	중국현당대문학		타이완문학		홍콩·마카오문학					
	세계화문문학									

스수메이	중국문학 (排除在外)	시노폰 문학		중국문학	시노폰 문학	거주지문학
	중국문학 (包括在外)	시노폰 문학				(시노폰 문학)
왕더웨이	공극적인 시노폰 문학(광의의 중국문학)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 내지 유사점이 있다. 양쪽

22) 이 도표는 개념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편의상 중국문학 부분에서는 한어로 된 문학만 표기했다. 시노폰 문학 부분의 마카오문학에 대해서는 홍콩문학에 준해서 판단했다.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이 전혀(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한어(화어)라는 언어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시노폰문학(또는 세계화문문학)과 중국과의 관계 해석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 그들은 사용 언어가 단일 개념으로서의 한어이냐 아니면 집합 개념으로서의 한어(화어)냐, 그것이 모어이냐 제 2 언어이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문학의 정의와 범주 구분에서 어떤 인간 집단의 삶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한어(화어)라는 사용 언어를 유일한 또는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그들은 중국문학과 시노폰문학(또는 세계화문문학)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로 보느냐 아니면 이를 부정하느냐, 시노폰 개념에서 중국을 포괄하느냐 배제하느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제시한 범주의 문학(특히 그 속에 포함된 화인화문문학)이 세계문학 또는 전체 인류의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로 중국문학과 시노폰문학(또는 세계화문문학)의 관계라든가 중국과 화인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목한다. 문제는 그들 각각의 입장과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이런 태도는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정치적 실체로서의 중국이나 역사 문화적 존재로서의 중국을 넘어서는, 거대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대 중화'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이 애초 '시노폰' 개념과 '시노폰 문학'을 제기한 것은 화인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아니라 화인이 거주지와 출발지로부터 가해지는 이중지배 내지 이중주변화를 이겨내고,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벗어나서 문화적 신분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는 중국과의 단절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중국의 자원을 활용하자고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 그 자체를 중시해서가 아니라 거주지에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논의가 오로지 중국이라는 구심력과 화인이라는 원심력의 관계망 속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중국중심주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애써 저항하고자 하는 '중국중심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거주지로부터의 압력 또한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상상하는 공동체인 시노폰 집단이 중국이라는 신축적인 역사 문화적 관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적 실체, 중국 국가주의/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이념과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 중화'의 탄생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륙 학계는 어떤가? 대륙 학계 역시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줄곧 서양중심주의적 패권주의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동일한 방식의 패권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근래에 들어와서 대륙 학계는 중국 문학의 범주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 경계나 정치적 지형보다 언어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문문학'은 물론이고 '한어신문학'²³⁾과 같은 주장이 등장한 것이 그러하다. 말하자면 그들은 화문/한어라는 언어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기존의 '중국현당대문학' 관념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대륙의 학술 체제와 관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재조정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또 한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문학의 범주를 재구성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홍콩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세계화문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된 과정, 타이완·홍콩·

23) 마카오대학의 주서우통(朱壽桐) 등은 '漢語新文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漢語新文學通史》(2010) 등 각종 저술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문학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차원으로 귀결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朱壽桐 2010: 10) "다른 개념과 비교할 때 '한어신문학'이라는 개념은 이런 점에서 우월하다. 신문학에 대해 국가 판도, 정치 지역이 주는 어떤 규정과 제약을 최대한 초월 또는 극복함으로써, 신문학 연구가 정치화된 학술적 애단을 벗어나서 한어의 심미적 표출의 법칙성을 탐구하는 방면에서 새로운 학술적 경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朱壽桐 2010: 8)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과 실천에는 최소한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문학에서 언어가 극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소홀히 하면서 그 표현 수단인 언어만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둘째, 그의 실제 작업은 한어문학의 심미적 법칙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단순히 한어를 사용한 모든 문학을 아우르는데 그침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와 '중국+한족=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라는 잠재된 욕망을 문학의 범주 면에서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카오 문학 및 화인화문문학을 중국 문학의 외부 확산으로 간주하는 태도, 대륙 내 소수종족 문학이나 기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문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세계문학 속의 중국문학 또는 세계화문문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오로지 서양문학과의 대비에만 치중하는 방식 등이 은연중에 모두 이런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다.²⁴⁾

이런 점들로 판단해 볼 때 연구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이 있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가치에 관한 것이다. 화인화문문학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화문문학 또는 이에 반발하는 시노폰 문학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화인화문문학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사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인화문문학은 블리즈와 가타리가 말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소수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주류문학에 충격을 주고, 문학 자체를 바꾸어 놓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문학의 일부로서 세계문학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해보자. 전 세계에 산재한 화인/화인집단은 본질적이고 일원화된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다. 각기 독자적이고 다원적인 복수의 집합체이다. 특히 이들은 오늘날 민족과 민족국가를 넘어서서 점차 새로운 형태의 인류 집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일부이다. 따라서 화인문학(화인화문문학 및 화인비화문문학)은 중국과 화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인류의 차원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문학의 일부이다.²⁵⁾ 마찬가지로 화인화문문학에 관한 연구(또는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시노폰 문학이나 세계화문문학에 관한 연구) 역시 단지 중국과의 관련성 여부에만 집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시노폰 문학 주장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제시했던 방안이

24) 이 때문에 선청리(沈慶利)와 같은 대륙 학자조차 이를 비판한다. 그의 주된 비판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 세계화문문학의 세계성 논리의 배후에 포함된 자기 비하적이면서 자기 과대적인 중국/세계의 이항대립적 사고, 둘째, 중국문학중심론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잠재된 중국대륙중심주의적 발상이다.(沈慶利 2008)

25) 화인화문문학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김혜준(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 대륙 학자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언했던 방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시노폰 문학의 개념을 중국과의 관계에만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서, 거주지와의 관계 및 서양중심주의와 관련한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초국가적 이주자문학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노폰 문학 주장은 서양중심주의적인 세계 학술계의 주류 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서양에서 활동하는 제3세계 출신의 학자로서 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출신지를 소재로 삼아 서양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서양중심주의에 협조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양을 대리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오해라든가, 혹은 정치적 견해에 바탕을 둔 냉전적 태도라는 오해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²⁶⁾

대륙 학자들은 더더욱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하게 중국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계문학의 차원에서 중국문학과 화인화문문학을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화인화문문학(또는 더 나아가서 대륙 내 소수종족문학)이 가진 소수문학으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화인화문문학이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 이주자 문학의 성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문학 속에서 중국문학 또는 화문문학/한어문학의 의의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어문학·프랑스어문학·스페인어문학 등 서양문학의 지위를 공략하여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즉 중국문학이든 화문문학/한어문학이든 간에 모두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그 정당한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지만 장차 서양문학을 대체하는 패권적 존재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화인화문

26) 스수메이는 어느 대담에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반중국적이고 냉전적인 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순전히 오해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자신의 주장은 화인을 디아스포라로 취급하며 주변화하는 서양 학술계의 서양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강국화에 따라 중국중심주의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일 뿐이고, 더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것이다.(許維賢·楊明慧, 2015)

문학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문문학(실제로는 대륙 외의 화문문학)을 단지 중국 이야기를 세계에 전파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²⁷⁾ 그보다는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소수자로서의 화인들이 각기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예술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 대륙 내부의 소수자와 대륙 외부의 인류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시도해야 한다. 요컨대 중국문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해서는 초국가적 이주자문학이자 소수문학으로서 그것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参考文献>

-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서울: 한국연구원, 1986.
-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인천: 화약고, 2007.
-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서울: 학고방, 2014.
- 葛兆光, 『宅茲中國: 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 北京: 中華書局, 2011.
- 王德威, 『跨世紀風華: 當代小說20家』, 台北: 麥田出版, 2002.
- 朱壽桐 主編, 『漢語新文學通史』,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0.04)
- 졸 고,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 _____,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7.

27) 2016년 11월 베이징에서 第二屆世界華文文學大會(中國海外交流協會·中國世界華文文學學會主辦)가 개최되었다. 개막식 및 기조 강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인사들과 중국작가협회 고위 인사들(吉狄馬加, 葉辛)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중국의 '민족부흥'이 도래했다는 것과 화문작가의 작품을 통해 '중국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세계란 (사실상) 서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명단을 참고로 할 때 이 회의에는 200여명의 대륙 외 화문작가와 100여명가량의 대륙 학자 및 필자를 포함한 소수의 외국인 연구자가 참석했다.

- 梁楠, <韓國華人華文文學初探>, 《중국어문논총》 제55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2.
- 왕더웨이 씀, 김혜준 옮김, <화어계 문학 — 주변적 상상과 횡단적 구축>, 《중국현대문학》 제60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 최승현, <현대 “중국”과 “학교”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총》 제33호, 한국 중국문화학회, 2011.
- Shu-mei Shih, “Global Literature and the Technologies of Recognition,” *PMLA: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Vol. 119, No. 1, Jan. 2004.
- ,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une 19, 2007.
- , “Hong Kong Literature as Sinophone Literature,”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in Chinese*, Vol. 8.2 & 9.1, Hong Kong: Centre for Humanities Research at Lingnan University, Jan. 2008
- , “Theory, Asia, Sinophone,” *Postcolonial Studies*, Vol. 13, No. 4, Dec. 2010.
- , “The Concept of Sinophone,” *PMLA: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Vol. 126, No. 3, May 2011.
- , “Introduction: What is Sinophone Studies?,” Shu-mei Shih, Chien-hsin Tsai and Brain Bernar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Jan. 2013.
- 畢紅霞, <我們為何批評王德威 — 兼論面對“海外漢學”的複雜心態>, 《當代文壇》2013年第3期, 成都: 四川省作家協會, 2013.
- 陳慧樺, <世界華文文學: 實體還是迷思>, 《文訊》革新第52期(總91號), 台北: 文訊雜誌社, 1993.
- 郜元寶, <“重畫”世界華語文學版圖 — 評王德威《當代小說二十家》>, 《文藝爭鳴》2007年第4期, 長春: 吉林省文學藝術界聯合會, 2007.
- 金進, <拓展中國現代文學疆界的必要和可能>, 《世界華文文學論壇》2015年第3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5.
- 黃維梁, <學科正名論 “華語語系文學”與“漢語新文學”>,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2013年第1期, 福州: 福建社會科學院, 2013.
- 黃一, <書寫新的文學中國史 — 王德威教授訪談>, 《山花》2011年第15期, 貴陽: 貴州

- 省文聯：貴州省企業決策研究，2011。
- 李鳳亮，〈“華語語系文學”的概念及其操作——王德威教授訪談錄〉，《花城》2008年第5期，廣州：花城出版社，2008。
- _____, 〈二十世紀中國文學研究的整體觀及其批評實踐——王德威教授訪談錄〉，《文藝研究》2009-2，北京：中國藝術研究院，2009。
- _____, ·胡平，〈“華語語系文學”與“世界華文文學”：一個待解的問題〉，《文藝理論研究》2013年第1期，上海：中國文藝理論學會·華東師範大學，2013。
- 劉俊，〈“華語語系文學”的生成、發展與批判——以史書美、王德威為中心〉，《文藝研究》2015年第11期，北京：中國藝術研究院，2015。
- 彌沙，〈世界文學觀念與華語語系文學〉，《世界華文文學論壇》2015年第4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2015。
- 苗綠，〈重寫中國文學史——王德威教授訪談之一〉，《長城》2012年第7期，石家莊：河北省作家協會，2012。
- _____, 〈中文語境裏的“世界公民”——王德威教授訪談之二〉，《長城》2012年第7期，石家莊：河北省作家協會，2012。
- 沈慶利，〈世界華文文學論爭之反思〉，陸卓寧主編，《和而不同》，南寧：廣西人民出版社，2008。
- 史書美，〈華語語系研究芻議，或，《弱勢族群的跨國主義》翻譯專輯小引〉，《中外文學》第36卷第2期，台北：台灣大學外文系，2007。
- _____, 〈理論·亞洲·華語語系〉，《中國現代文學》第22期，台北：中國現代文學學會，2012。
- _____, 〈華語語系研究對台灣文學的可能意義〉，《中外文學》第44卷第1期，台北：台灣大學外文系，2015。
- _____, 〈何謂華語語系研究？〉，《文山評論：文學與文化》第9卷第2期，台北：政治大學英文系，2016。
- _____, 楊華慶譯，蔡建鑫校，《視覺與認同：跨太平洋華語語系表述·呈現》，台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2013。
- _____, 趙娟譯，〈反離散：華語語系作為文化生產的場域〉，《華文文學》第6期，汕頭：汕頭大學，2011。
- 湯擁華，〈文學如何“在地”——試論史書美“華語語系文學”的理念與實踐〉，《揚子江評論》2014年第2期，南京：江蘇省作家協會，2014。
- 王德威，〈華語語系文學：邊界想像與越界建構〉，《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6年

- 第5期, 廣州: 中山大學, 2006.
- _____, <文學地理與國族想象: 台灣的魯迅, 南洋的張愛玲>, 《中國現代文學》第22期, 台北: 中國現代文學學會, 2012.
- _____, <“根”的政治, “勢”的詩學 — 華語論述與中國文學>, 《中國現代文學》第24期, 台北: 中國現代文學學會, 2013.
- _____, <華語語系的人文視野與新加坡經驗: 十個關鍵詞>, 《華文文學》2014年第3期, 汕頭: 汕頭大學, 2014.
- _____, <華夷風起: 馬來西亞與華語語系文學>, 《中山人文學報》第38期, 高雄: 中山大學, 2015.
- _____, <華語語系, 台灣觀點>, 《中外文學》第44卷第1期, 台北: 台灣大學外文系, 2015.
- 溫儒敏, <談談困擾現代文學研究的幾個問題>, 《文學評論》2007年第2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7.
- 溫儒敏, <文學研究中的“漢學心態”>, 《文藝爭鳴》2007年第7期, 長春: 吉林省文學藝術界聯合會, 2007.
- 吳奕錡·彭志恒·趙順宏·劉俊峰, <華文文學是一種獨立自足的存在>, 《文藝報》華馨版, 2002.
- 許維賢·楊明惠, <華語語系研究不只是對中國中心主義的批判: 史書美訪談錄>, 《中外文學》第44卷第1期, 台北: 台灣大學外文系, 2015.
- 楊俊蕾, <“中心 — 邊緣”雙夢記: 海外華語語系文學研究中的流散·離散敘述>, 《中國比較文學》2010年第4期, 上海: 上海外國語大學·中國比較文學學會, 2010.
- 曾 軍, <“華語語系學術”的生成及其問題>, 《當代作家評論》2012年第4期, 潘陽: 遼寧省作家協會, 2012.
- 曾 琳, <讀史書美“反離散”原文及中譯文有感>, 《華文文學》2014年第2期, 汕頭: 汕頭大學, 2014.
- 趙稀方, <從後殖民理論到華語語系文學>, 《北方論叢》2015年第2期, 哈爾濱: 哈爾濱師範大學, 2015.
- 莊華興, <馬華文學的疆界化與去疆界化: 一個史的描述>, 《中國現代文學》第22期, 台北: 中國現代文學學會, 2012.
- 朱崇科, <華語語系的話語建構及其問題>, 《學術研究》2010年第7期, 廣州: 廣東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10.
- _____, <再論華語語系(文學)話語>, 《揚子江評論》2014年第1期, 南京: 江蘇省作家協會, 2014.

< Abstract >

Sinophone Literature, World Chinese Literature, and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 Mainland Responses on the Sinophone Literature Discourse

Kim, Hye-joon

In mainland China, scholars have been keeping an eye on the development of Sinophone literature discourse, with some expressing more direct interest in it. Many mainland scholars find the notion of Sinophone literature valuable in the way that it can potentially offer fresh academic vantage points, mobilize interdisciplinary methodologies, provide transnational perspectives, develop conversations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field beyond China, and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 to global literature stud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often take much more critical stances toward the arguments produced from the Sinophone literature discourse.

Most criticism is focused on the way Shu-mei Shih counterposes Sinophone communities(or overseas Chinese) with mainland China. Also, they argue against Shih's literary interpretations based on ideas like "against diaspora", "anti-Sino-centrism", "internal colonialism", and "settler colonialism". Mainland scholars identify Shih's argument as a separatist one that sets the mainland and Taiwan apart, essentially a vestige of Cold War ideology. Moreover, they do not limit their criticism to the argument itself, but extend to conditions of reasoning. They object that it is a case of simple application or misappropriation of postcolonial theory, minor literature theory, and other Western theories to the Chinese and the oversea Chinese problematics. Although these criticisms are justifiable, some of them are rather unnecessarily excessive.

Meanwhile, it is rarer to find mainland scholars making exclusively criticism against David Der-Wei Wang's argument and reasoning. The scarcity can probably be traced from the fact that Wang's argument has many overlaps with those of the mainland scholars, as well as the way his argument highlights the possibility and the need for productive conversations. However, this does not indicate that there are no criticisms against Wang's argument. In fact, mainland scholars challenge the way Wang translates the term "Sinophone" to "Huayu Yuxi(華語語系)". Also, they are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Wang comprehends the politics between mainland Chinese and the Sinophone community (which includes internally the ethnic minorities and other communities that do not align with PRC nationalism, and externally, the Taiwanese, Hong Kong, Macau, and Overseas Chinese) as domestically a repressive one and externally an imperial project.

Even when political stances are set aside, Sinophone literature scholars and mainland scholars hav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way they view literature itself. The differences stand out most sharply in how they understand Chinese literature (mainland Chinese-language literature, Taiwanese literature, Hong Kong literature, Macau literature) and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Mainland scholars tend to maintain the Sino-centric (or mainland-centric) perspectives, whereas those arguing for Sinophone literature understand Sinophone literature as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sphere, which ultimately is unrelated or at least on an equal playing field with Chinese (or mainland Chinese-language) literature. It might as well be said that such disagreement in how each define and categorize Chinese literature and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signifies the most revealing differences between Sinophone literature scholars and the mainstream mainland scholars.

Despite apparent disagreement, one must not overlook their commonalities or similarities. They both attach great importance to linguistic element (Chinese/Hanyu/Huayu),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Sinophone literature(or world Chinese literature)'s relationship with mainland China.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stances or intention, this tendency can lead to perhaps not the most desirable effect: they might end up producing an imagined community that exceeds China as political being or historical/cultural being, namely, "the grand Sino-community".

It is imperative that Sinophone literature scholars make serious consideration of both their own arguments and the insights that have emerged from the mainland scholars' criticisms. That is, instead of confining the concept of Sinophone literature to examin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he concept can be mobilized to discuss its relationship with residence, Eurocentrism (Westcentrism), and most significantly, the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Only then the Sinophone literature as a critical theory can make crucial contribution to reshaping the Eurocentric tenor of the World literature conversation.

Key words: Sinophone, Sinophone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world Chinese literature, mainland Chinese-language literatur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투 고 일: 2017. 02. 28

심 사 일: 2017. 03. 16-03. 30

게재확정일: 2017. 04. 14